

## 서구, 동절기 건축공사 현장 점검 실시로 대설·강풍·화재 예방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 현장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사, 시공기술사, 토질·기초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민간 건축공사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설·폭설·강풍 등 동절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보온·양생 관리 여부와 동절 방지를 위한 시공 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상태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함께 점검하였다.

아울러,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현장 내 소화설비의 적정 비치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용접기·난방기 등 인화성 장비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화재 예방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서구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기상 여건 악화와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동구, ‘2026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다세대·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시설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 시설 ▲소방 배관 ▲스프링클러 및 열화상 폐쇄회로(CCTV)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경비원·군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단,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된다.

아울러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및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까지로 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

시설 지하화로 상부는 시민공원으로 재탄생...2032년 준공 목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연수구청장, 시·구의원,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인 추진을 함께 기원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 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 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km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유입관로 4.8km를 신설하는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 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남동구, 북한 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마무리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북한 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 북한 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전했다.

남동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탈북민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해 ▲북한 배경 청소년 및 가족 심리상담 ▲사례공유회 ▲지도자, 학부모 대상 교육 연수 등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넘어 가족 전체의 건강한 소통을 돕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제2하나원과 협력해 북한 배경 청소년과 부모 29명이 참여하는 ‘하나마음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지속해 온 ‘학생 가방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했다.

백양숙 센터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시간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및 교통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내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며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웅진군 북도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은 인천광역시의 사업별 택시 총량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교통 예정인 신도평화대교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북도면 지역에 개인택시 2대를 신규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면허 신청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대상자 선정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웅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경력 분류별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1월5일부터 2월6일까지이며, 면허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웅진군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교통과 육상교통팀(032-899-2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하린 기자

## “현장의 목소리 정책의 출발점 삼아 학교현장지원 더욱 매진해달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분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

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회는 분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I

교육 ▲평화와 공존의 시민 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 안전 및 복지 강화 등이다.

보고회 운영 방식은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조감도 형태의 자료를 활용해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일 진행된 첫 보고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화두로 ‘존이구동(尊異求同·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을 제시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인천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